



 2018
연차보고서

2018 사업 국가

10개국

몽골
수혜자
42명

네팔
수혜자
1,153명

인도
수혜자
13,993명

미얀마
수혜자
162명

부룬디
수혜자
21,027명

방글라데시
수혜자
372명

필리핀
수혜자
639명

탄자니아
수혜자
1,749명

캄보디아
수혜자
50명

짐바브웨
수혜자
4,491명


전체 수혜자
43,678명



교육사업

수혜자

2,564명

6개국



차별극복/인권옹호

수혜자

162명

1개국



환경

수혜자

42명

1개국



전체 사업

27개



활동가 역량강화

수혜자

1명

1개국



지역개발사업

수혜자

40,909명

7개국



식수사업

47개국 . 마을 20개

수혜자

19,633명



농업개발사업

4개국 . 마을 11개

수혜자

9,342명



가축사업

17개국 . 마을 17개

수혜자

5,385명



역량강화사업

2개국 . 마을 27개

수혜자

1,164명



자립센터 건축

17개국 . 마을 17개

수혜자

5,385명

부룬디

Burundi



1962년 벨기에로부터 독립한 이후 수차례의 내전으로 사회적 혼란을 겪어온 부룬디. 여전히 그 영향으로 많은 주민들이 빈곤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2018년 재단에서는 카그웨마 마을 발전사업과 무진다 마을에서의 학교 건축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사업지역 부반자 주(州) 카그웨마, 무진다 마을 / 협력단체 IPSDI Burundi

카그웨마 마을 자립사업

마을주민 **5,385**명

카그웨마의 현 주민들은 본래 살던 지역이 국가의 산림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추방됨에 따라 해당 마을에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정부에서 마을에 적절한 사회기반시설을 전혀 제공하고 있지 않아 식수부터 교육 문제까지 다양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식수개발



다목적센터



역량강화



농업개발



양계사업



카그웨마 2,3지구 식수개발사업

 식수대
6개

이전에 지어졌던 카그웨마 1지구의 식수 시설을 확장해서 2와 3지구 주민들이 1지구까지 먼 길을 걷지 않고도 바로 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로써 카그웨마 마을 전체 주민들이 더욱 편리하게 깨끗한 식수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탱크를 3기 설치하여 식수의 양을 늘렸고, 1,2,3지구 모두에 6개의 급수대를 설치해서 물에 대한 접근성도 개선했습니다.



카그웨마 농업개발 사업

 토지개간
18헥타르
 수확물
8865 kg

마을 주민들의 건강한 식량 확보와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농업개발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주민들은 개간한 18헥타르의 농지에 마을 공동농업단지를 조성하고 이를 경작하여 한 해 동안 8,865kg의 옥수수와 토마토를 수확했습니다. 이를 통해 주민들의 영양결핍을 해결하였고, 더 나아가 주민들에게 유기농업 교육을 실시하여 소득 창출의 기회를 확대했습니다.



카그웨마 주민 역량 강화사업

 봉제기술교육
15명
 농업기술교육
100명
 리더십 교육
12명

주민 생계기술교육(봉제기술 교육)

전문봉제기술 강사를 섭외하여 주민 15명에게 재봉틀 사용법과 기본 봉제기술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배운 기술을 실제로 활용할 수 있도록 마을 협동조합과 연계하여 수익창출모델을 마련하였습니다. 그 결과 카그웨마 내 희망초등학교에 보낼 교복 350벌을 제작, 납품하여 소득을 얻었습니다.

농업 기술향상 및 역량강화 교육

마을의 농업생산성을 개선하고 협동농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 친환경 유기농업 기법과 저장/유통 등 사후관리, 그리고 협동농장의 운영과 관리에 관해서 다뤘습니다.

주민협동조합 지도자 양성 및 역량강화

COCOKA협동조합 경영진과 마을 지도자들의 리더십을 강화하기 위한 집중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이들은 후에 마을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 프로그램(협동조합 기초지식, 소득창출 사업 소개 등)을 직접 기획하기 위한 훈련에 참여하고 전문가로부터 컨설팅도 받았습니다.

COCOKA(Community Cooperative of Kagwema)는 카그웨마 마을 내 협동조합으로, 마을에서 운영하는 농업, 축산업, 기술교육 등 모든 사업을 관장합니다. 2017년 결성된 조합은 현재 75명의 회원이 활동 중이며 모두가 동등하게 권리와 의무를 행사하는 민주적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카그웨마 마을 자립사업은 COCOKA를 중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카그웨마 마을 양계 사업

코코카 협동조합원
75 명
 암닭
650 마리

COCOKA 협동조합에서는 2017년 양계 사업을 시작하여 현재까지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농장 안전관리/닭 사육/닭장 청소의 세 가지 일을 나누어 맡으며 양계와 협동농장 관리 기술 교육도 받고 있습니다. 하루에 약 540개의 달걀을 생산하여 인근 시장과 마을 회관에 판매하고 일부는 조합원들에게 배분하여 마을 주민들의 영양 섭취와 소득 창출에 모두 도움이 됩니다.



카그웨마 마을 다목적센터 건립 사업

COCOKA협동조합을 중심으로 한 카그웨마 마을 자립 사업들을 통합하고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 다목적센터를 건립하고 있습니다. 센터는 농업 생산물의 안정적인 보관과 공급을 위한 식량창고, 마을 주민들의 판매와 소비를 위한 상점, 기술훈련과 제작이 함께 이루어질 재봉실, 주민들을 위한 교육이나 모임의 장이 될 다목적 회의실로 이루어집니다. 센터를 통해 주민들이 더욱 결속되고 협동조합의 소득 창출도 보다 수월해질 것을 기대합니다.

최정숙 여자고등학교 건립사업 + 스쿨버스 지원



재학생
96 명
 3년간 학생선발
255 명

부룬디에서는 사회적 편견 때문에 여자 아이들이 고등교육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부룬디에 최초의 여자 고등학교, 최정숙여자고등학교를 세웠습니다. 8월에 열린 학교 완공식에는 <최정숙을 기리는 모임> 방문단 19명이 참석해서 함께 축하해 주었습니다.

학교는 6개의 교실, 기숙사, 도서관, 식당, 컴퓨터실, 다목적실, 행정동을 갖춘 두 건물로 이루어져 있으며, 학생들의 중퇴를 막기 위해 전원이 기숙사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정숙 여고에서는 부룬디의 주력 사업인 농업 식품가공 특별 교육과정을 운영하여 부룬디의 미래를 이끌 우수한 여성 인재를 키워가려고 합니다. 더불어, 스쿨버스 지원으로 견학이나 통학 지원도 더 용이해졌습니다.





Z i m b a b w e

짐바브웨

정치적 혼란, 경제위기로 국가재정이 파탄에 이르렀던 짐바브웨. 2018년 재단에서는 전년도에 이어 모파니파크 지역을 중심으로 한 교육 및 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짐바브웨 서부 마쇼날랜드 지역에서는 초등학교 건축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사업지역 마쇼날랜드, 차카리 모파니파크 지역 / 협력단체 ABDO(Africa Book Development Organization)



여성경제센터 우물 건립 사업



수혜자
3,840명



마을
6개

차카리 지역의 여성경제센터는 모파니파크를 비롯한 6개 마을 내 여성의 경제적 자립을 위한 재봉, 양계, 마을은행, 농업개발, 회의실과 기타 편의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특성상 식수가 부족해 위 시설들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어려워, 우물을 건립하게 되었습니다.

안정적인 물공급을 확보해서 센터의 프로그램을 원활히 운영한다면, 여성들이 생계를 위한 소득을 얻고 이를 통해 마을 은행의 기초자금도 확보하여 자립의 기반을 다질 수 있을 것입니다.



모파니파크 초중등학교 장학사업+ 차량 지원



초등학생
40명



중학생
30명



차량
1대

도시와 농촌 사이에 큰 교육 격차가 존재하는 짐바브웨. 재단은 농촌지역인 모파니파크에서 학업을 지속하기 어려운 형편의 아이들에게 2016년부터 3년째 장학금을 지원해 왔습니다. 장학금은 학비 외에 교복과 구두도 포함됩니다. 2018년에는 40명의 초등학생과 30명의 모파니파크 초등학교 출신 중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였습니다. 일시적인 지원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이어졌기 때문에 학생들이 안정적으로 계속 학업을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한편 협력단체인 ABDO가 사업을 원활하게 운영하고 모니터링할 수 있게 차량을 한 대 지원하였습니다.



사바나 초등학교 건축사업



학생
565 명



교사
16 명



건물
5 개



책걸상
600 개



교육시설이 열악해서 인가 받지 못했던 사바나 초등학교가 건물 신축과 교구 보급, 식수시설 설치를 통해 정규학교로 인정받았습니다. 총 15개월간 학교건물 4개동(교실 8개)과 교사동을 신축하고 책걸상 600세트를 설치하여 학생들이 학업에 더욱 잘 집중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깨끗하고 안전한 식수 시설과 화장실을 설치해 위생환경 또한 크게 나아졌습니다. 특히 이번 건축 과정에서는 직접 벽돌을 제작하고 노동 봉사를 아낌없이 제공하는 등 마을 학부모님들의 적극적인 의지가 돋보였습니다. 사업을 통해 한층 개선된 사바나 초등학교는 앞으로 교육의 질 또한 향상하여 마을의 밝은 미래를 이끌어 갈 것입니다.

5년 동안 모파니파크 장학 사업과 함께 공부해온 데이빗

안녕하세요. 저는 데이빗(David Hove)이고 수학과 과학을 좋아해요. 저는 모파니 초등학교를 다니던 2014년부터 장학금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 당시 초등학교를 가려면 집에서부터 두 시간을 걸어야 했어요. 하지만 장학금까지 받는데 학업을 포기할 수는 없었죠. 심지어 저희 아버지는 저를 학교에 보내려고 유일하게 가진 집을 팔기도 하셨는데, 제가 A로 가득 찬 성적표를 가져가면 후회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시곤 했어요. 그 후 중고등학교에 가서도 계속 학비와 학업 상담까지 받으며 무사히 공부를 마칠 수 있었습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물론 힘들 때도 있었지만 가족과 학교, 희망재단을 비롯한 든든한 지원군들이 있어 버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에는 드디어 시험에 합격해서 대학 입학 자격을 얻었습니다! 긴 시간 동안 저의 학업 여정을 함께해 주신 것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탄자니아

마사이족은 기후변화로 인해 유목생활이 힘들어져 점차 정착생활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마다 얻을 수 있는 물은 제한되어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탄자니아 샤토마을에 정착한 이들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 식수지원사업을 진행했습니다.

사업지역 킬리만자로 주(州) 샤토마을 / 협력단체 The Grail Tanzania



샤토마을 식수지원 개발사업

 수혜자 **1,749**명
 수도관 **6**개

주민들이 농업에 주로 종사하지만 강우량은 부족한 샤토마을. 지하수가 흐르고 있지만 시추 기술이 미흡해서 항상 물부족에 시달려 왔습니다. 학생들은 먼 거리에서 물을 길어오느라 학업에 지장이 생기기도 합니다. 이런 샤토마을에 안전하고 깨끗한 식수를 공급하여 학업과 경제 활동이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했습니다. 지하수를 끌어오기 위한 수도관 6개와 식수 탱크를 설치했습니다. 마을 주민들은 직접 작업에 참여하면서 함께 일하는 즐거움을 배웠고 공동체는 한층 더 끈끈해졌습니다.

사업지원, 그 이후: 다시 찾은 엔데베시 초등학교

2017년 9월, 재단에서는 소외되고 빈곤한 마사이 주민들을 위한 엔데베시 초등학교를 세웠습니다. 그로부터 약 1년 반 뒤인 2019년 초, 다시 학교를 찾았습니다. 우수한 교육환경을 확보함에 따라 점차 전학생이 늘어나고 있다는 기쁜 소식을 들었습니다. 현재는 187명의 학생들이 학과별 수업과 스와힐리어 교육을 함께 받고 있습니다. 문맹률이 90%에 달하는 마사이족의 특성을 고려해 성인을 위한 스와힐리어 과정도 함께 이루어집니다. 남녀 노소 언어를 배우는 기쁨에 푹 빠져 있다고 하네요. 초등학교 근처에는 엔데베시마을 유치원도 운영되어 57명의 어린이가 다니고 있답니다. 엔데베시 마을의 밝은 미래를 함께 응원해 주세요!





인도

카스트 문화가 뿌리 깊게 남아 있는 인도, 카스트 계급에도 속하지 못한 이들을 불가촉천민(달리트 Dalit)이라 합니다. 달리트는 극심한 사회적 차별과 인권 억압, 빈곤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재단에서는 2018년 달리트의 경제적 자립과 위생환경 개선, 교육 지원, 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사업지역 타밀나두 주(州), 아루나찰 프라데시 주(州), 뉴델리
협력단체 HRDF(Human Resources Development Foundation), WORD(Women's Organisation For Rural Development), CSEI (Center for Social Equity and Inclusion), 프란치스코전교봉사 수녀회



사업지역 타밀나두 주(州) 칸치푸람 지역
협력단체 HRDF

달리트 여성 유기농업 개발사업



토지를 소유하지 못해 생활고에 시달리던 달리트 여성 농부들을 위한 유기농업 개발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칸치푸람 지역의 52개 마을에 60개의 여성 농부 모임을 만든 것으로 시작해, 이를 협동조합으로 발전시켜 식량의 자급자족을 해결하고 남은 농산물을 통해 수익도 올리고 있습니다. 2018년에는 토양 처리기술 교육을 통해 50헥타르의 토지를 추가 개발했고, 관개시설 개발로 달리트 농부 110명이 풍부한 농업용수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보관할 공간이 없어 매년 종자를 비싼 비용으로 구매했던 농부들을 위해 종자은행이 설립되었습니다.



사업지역 타밀나두 주(州) 칸치푸람 지역, 파라마티 벨루 지역
협력단체 HRDF, WORD

달리트 공동체 식수개발사업



상위 카스트들과 같은 우물에서 물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차별받는 달리트들을 위해 이들의 마을에 우물을 설치하였습니다. 타밀나두 주 내에서 칸치푸람 지역의 5개 마을, 파라마티 벨루 지역의 7개 마을에 설치하여 총 12개 마을에서 달리트 주민들이 안전하고 지속적인 식수를 확보하고 건강을 회복했습니다. 더불어 식수위생교육과 환경교실, 텃밭가꾸기 교육을 진행했으며, 용수시설 주위에 나무를 심어 낭비되는 물을 생산적으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달리트 여성 자립을 위한 안나팜 사업

사업지역 타밀나두 주 남마칼 지역
협력단체 WORD

남편을 잃고 생활고에 시달리는 달리트 여성가장들을 위해 안나팜 지원사업을 실시했습니다. 농업용수를 얻기 위해 600피트 깊이의 모터펌프를 설치하였고, 1에이커의 토지를 얻어 900개의 구아바 묘목을 심었습니다. 구아바의 열매는 식용, 가공식품, 화장품 원료 등 다양한 용도로 쓰여 소득 창출에 유리합니다. 또한 협동농장원 여성 25명에게 유기농 원예법과 농법을 교육하여 이들의 지속적인 자립을 도왔습니다.



사업 마을
5 개



여성협동농장원
25 명



구아바 나무
900 그루



뉴델리 소외아동을 위한 교육센터 지원사업

사업지역 뉴델리 외곽 슬럼가 2곳
협력단체 CSEI

델리 주 아동의 30% 비율을 차지하는 달리트와 무슬림 아이들은 생계가 어려운 부모의 무관심과 공립학교의 교육 질의 한계로 인해 소외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교육 불평등이 가난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끊기 위해, 재단에서는 학생들의 신체적, 정서적, 지적 발전을 목표로 초등학생을 위한 ERC(Education Resource Centres)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YTC(Youth Tech Hubs)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참여아동/청소년
165 명



운영 센터
4 개



동바 성보라뻘뚜라 학교지원

사업지역 아루나찰 프라데시 주 동바 지역
협력단체 프란치스코전교봉사 수녀회

학교 시설에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아 어려움을 겪던 성보라뻘뚜라 학생들을 위해 기숙사와 강당을 신축했습니다. 2016년에 착공하였으나 그 사이에 인도 화폐 개혁으로 인해 공사 기간이 다소 지연되어 2018년 7월 말에 완공했습니다. 기숙사가 신설 되어 자연재해 및 화재, 야생동물의 위협으로부터 벗어나 학생들의 안전한 거주공간이 확보되었습니다. 또한 연중 5개월 이어지는 장마철 동안에도 강당 안에서 다양한 체육 활동을 안전하게 진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학생
500 명



건물
2 개



'안나팜에서 일하면서 삶의 긍정적 에너지를 얻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32살 농부 바니타라고 합니다. 한국희망재단의 안나팜에서 일하기 전에는 매일 생계를 위협받고 있었어요. 최신 기계와 장비가 나오면서 하루가 다르게 일자리는 줄었고 오직 땅 주인의 자비에 의존해서 일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었죠. 지금은 농업기술에 대한 훈련도 받으면서 협동 농장 일을 함께 하고 있어요. 제가 경작하고 가꾼 결과물을 직접 소유할 수 있어서 정말 행복하고 긍정적 에너지가 넘쳐흐릅니다.

네팔



N e p a l

2015년 네팔 대지진 때 무너진 마하락시미 학교의 재건축을 계기로 시작된 타플레 구 마을 발전 사업이 2년차에 접어들었습니다.

마을 내 지속가능한 소득을 창출하기 위해 기술훈련, 인식개선 그리고 교육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업지역 고르카 타플레 구 / 협력단체 SoD Nepal (Solidarity for Development Nepal)

타플레 마을 발전 사업



기술교육 및 수익창출



재봉교육

15명



대나무 수공예 교육

9명



염소 지원

10가구



재봉기술교육 및 생산

15명의 마을 여성이 6개월 간 교복과 여성리류 만드는 법을 배웠습니다. 2018년에는 재봉 센터에 '버로사(믿음)'라는 이름을 붙여서 브랜드화하고 본격적인 생산을 시작했습니다. 교육생 중 8명이 월 평균 6000~8500네팔루피(원화 약 6만원~8.5만원)의 소득을 얻고 있습니다.

대나무수공예품 교육 및 생산

6개월간 9명의 주민이 마을의 대나무를 이용한 수공예품 제작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 결과 의자, 바구니, 차 보관함 등 다양한 상품을 제작하고 판매하게 되었습니다.

염소 지원

총 10가구에게 각각 2마리씩의 염소를 빌려주고 사육과 관련된 기술 교육도 진행했습니다. 2년 동안 자유롭게 염소를 부리고 다시 2마리의 염소를 재단에 돌려주는 방식입니다.

주민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 재봉과 대나무 수공예품 기술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교육 이후에는 배운 기술이 바로 소득 창출로 이어지도록 일 자리를 연계해 줍니다.



마하락시미 학교 교육 지원



장학금/교육물품

72 명



소셜드라마&문화활동

59 명

장학금, 소셜드라마와 문화활동을 통해 해당 지역 교육의 질을 높이고 학생들의 창의력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학업 의욕이 높지만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72명의 학생들에게 장학금, 교복, 학용품 등을 지급해 중퇴를 줄였습니다. 또한 아동의 권리와 부모의 역할을 주제로 한 소셜드라마, 다양한 부족 문화를 서로 공유하기 위한 전통춤, 노래 등의 문화활동을 학생들이 준비하고 공연했습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예술적 재능을 발휘하였으며 마을 사람들에게는 해당 주제에 대한 인식을 바꿀 계기가 되었습니다.



여성 인식개선 교육



총 교육 참가자

855 명



건강검진

37% 증가

마을 여성들을 대상으로 건강, 리더십, 협동조합에 관한 인식개선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1년 동안 부인과 질병에 대해 다루는 건강 교육이 3회, 리더십의 필요성과 계발에 대한 교육이 2회, 협동조합의 정의와 필요성에 대한 강의가 3회 진행되었습니다.

그 결과 마을 여성들의 건강검진 비율이 증가하였으며, 마을 프로그램 내에서 리더 역할을 맡는 여성도 늘어났습니다. 또한 협동조합 강좌 이후에 조합 내에서 채소 재배, 양계장 등 다양한 경제활동 프로그램이 시작되었습니다.



인식개선 교육이 쓰아올린 희망, 마을 양계 사업

인식개선 사업을 계기로 함께 양계 사업을 시작하면서 소득을 올리고 있는 여성 모임이 있습니다.

네팔 타플레 마을의 '서로스티 여성모임'은 2015년에 39명의 마을 여성이 모여 시작되었습니다. 그로부터 3년 후인 2018년, 여성들이 한국희망재단의 인식개선 사업에 참여하면서 모임은 전환점을 맞게 됩니다. 단순한 소규모 저축 모임에서 소득 사업을 진행하는 협동조합으로 탈바꿈한 것입니다.

논의 끝에 양계 사업을 하기로 결정한 서로스티 여성모임! 조합원들이 직접 힘을 모아 닭장을 짓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주민들의 한땀 한땀으로 5월에 닭장이 완성되었고, 병아리 500마리를 키우는 것으로 양계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 총 세 차례 병아리를 닭으로 키우고 마을과 시내에 팔았다고 합니다. 이렇게 마을 여성들이 자발적으로 사업을 시작하여 지속가능한 소득을 얻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올해 2019년에는 이 양계 사업을 더욱 확장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기존의 2배 이상 규모로, 닭을 2000마리까지 수용할 수 있는 보다 큰 닭장을 짓고 있습니다. 타플레 마을의 자립 이야기. 앞으로도 기대해 주세요 ^^



캄보디아

주로 값싼 수입 농산물이 유통되는 캄보디아 시장에서 지역 농산물은 설 자리를 잃고 있습니다. 유기농산물 생산과 판매망 구축을 위한 청년들의 활동이 캄보디아 농촌 지역에 새로운 활기를 불어넣고 있습니다.

사업지역: 바탄지역 바탐방 / 협력단체: TRK (Tompeang Russey Khmer Association)



농업 협동조합 지원사업



참여자
50명



달구지투어 관광객
83명

도전적인 젊은이들이 모여 농산물을 생산, 판매하고 지역을 활성화하는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며 더 나아가 협동조합을 구성하기 위해 준비 중입니다. 2018년에는 유기농마켓과 소달구지(소가 끄는 짐수레) 투어 사업에 주력했습니다. 유기농마켓을 통해 매일 유기농 채소, 견과일, 꿀 등을 시장에서 판매합니다. 달구지투어는 현지 문화를 체험하기 위한 유기농 농장 관람, 야자수잎 모자 만들기 등의 활동을 포함하여 10개월 동안 83명의 관광객을 모았습니다. 그 외에 협동조합 홍보와 주민 교육 활동도 진행했습니다.

바탐방 주민들의 건강을 책임지는 유기농 마켓

매일 아침 6시, 하루도 빼먹지 않고 프살 보엥 축(Phsar Boeng Chhuk)에서 열리는 유기농 마켓. 바탐방 지역 농부들은 물론 다른 지역에서 유기농 작물을 재배하는 농부들도 함께 참여하고 있습니다. 가지, 양배추, 레몬 등의 유기농 채소와 견과일(망고, 파인애플 등), 꿀, 씨앗, 빵까지 다양한 상품을 준비해 소비자들의 이목을 끄니다. 오코라, 비터멜론, 오이, 콩 등의 몇몇 채소는 페이스북 페이지(<https://www.facebook.com/phnomsampovcoops/>)에서도 판매해 접근성을 높였습니다. 유기농 마켓을 통해 농부들은 상품을 판매할 기회를 얻고, 바탐방 지역 주민들은 건강한 유기농 채소를 소비할 수 있으니 일석이조입니다.





사업지인 시멀리아는 소수부족 원주민 마을로 대부분 주민들이 일용직에 종사하고 빈곤에 시달립니다. 성 안토니 학교는 이러한 가난이 아이들에게 대물림되지 않도록 2006년 카와찰라 교구에 의해 설립되었습니다. 재단에서는 2013년부터 교실 등의 인프라 구축을 시작으로 안정적인 교육 여건을 위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지역 다카권역 시멀리아 마을 / 협력단체 Caritas Bangladesh



다카권역 빈곤아동기초교육



지원
6년째



학생
77명

현재 성 안토니 학교에는 총 77명의 학생이 재학 중입니다. 학생들은 소외되고 빈곤한 소수부족 원주민의 자녀들로, 보호자가 없는 40명의 학생들은 기숙사에서 생활 중입니다. 2018년에는 교복, 교과서, 영양식 등을 지원하고 학생과 학부모 모두에게 건강 인식개선 교육 또한 실시했습니다. 또한 양질의 교육을 위한 지역 내에서의 자발적인 노력이 있었습니다. 교사들은 학생 참여식 교수법 개발을 위한 모임을 가졌고, 학부모와 학교 관계자들은 지역 모임을 통해 향상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방법을 토의했습니다.

우리 네마가 달라졌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성 안토니 초등학교에 다니고 있는 일곱 살 네마(Naema Hossain)입니다. 성 안토니 초등학교에 오기 전에 다른 학교를 다녔었는데 1년 동안 글을 배우지 못했어요. 그래서 저희 부모님이 여기로 전학을 보내셨어요. 다시 1년 동안 성 안토니 초등학교를 다닌 지금은 글을 읽고 쓸 수 있게 됐어요. 전에는 공부가 너무 하기 싫어서 학교에 있는 내내 장난만 쳤는데, 이제는 공부가 재미있어졌어요. 제가 이렇게 바뀐 건 선생님들이 저한테 잘해 주시고 수업도 재미있게 해주시기 때문이에요.





필리핀

필리핀은 기초교육이 무상이지만 가난한 슬럼지역 아동청소년들은 기초교육 물품과 경비가 없어 학교를 중퇴하는 일이 빈번합니다. 재단은 2007년부터 소외 아동청소년들을 위한 교육지원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사업지역 세부시 카레타, 파실 슬럼가, 까냥칸 보홀지역 / 협력단체 FTCP(Feed The Children Philippines), MUAD Negros



칸탈라완 초등학교 교실 증축 사업

 교실 **2** 개
 학생 **200** 명

교실이 부족하여 한 교실을 반으로 나눠 두 개의 수업을 같이 진행할 수밖에 없었던 칸탈라완 초등학교. 다른 학년이 같은 공간에서 수업을 듣기에 학생들은 늘 집중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이에 아이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2개의 교실을 갖춘 건물을 지었습니다. 필리핀의 환경을 고려해 태풍에 강한 구조로 건축했으며, 건축 이후에 교사 2명도 추가 파견해서 교육환경을 크게 개선했습니다.



필리핀 빈곤아동 기초교육 사업

 수혜 아동/청소년 **30** 명
 대학 진학 **2** 명

세부 시 안의 불법 거주지역에 사는 많은 아동들은 무상교육에도 불구하고 기초교육물품과 교통비가 없어서 학업을 중단하는 일이 빈번합니다. 아동들이 학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2007년부터 장학사업을 진행 중입니다. 2018년에는 30명의 빈곤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학용품, 교복 등의 물품을 지원했습니다. 단순 지원뿐 아니라 학습전문가와 사회복지사와 협력하여 아동들의 학습성고를 관리했으며, 부모들에게는 저축 교육을 실시하여 경제 인식을 높였습니다. 특히 이번에는 사업이 시작한 이래 처음으로 2명의 학생이 대학에 진학하게 되었습니다.



네그로스 기초수급 가정을 위한 푸드하우스 사업



참여가정 40 가구



교육 3 회

40가구로 구성된 네그로스의 크리스토나 공동체는 전반적으로 소득이 빈곤 기준치 이하로 떨어져 있습니다. 이들의 월평균 소득은 PhP 2,000(한화 약 42,000원) 정도에 불과하며 주민번호도 없는 등 사회적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40가구에 푸드하우스 프로덕션 시스템(Food House Production System)으로 불리는 지속가능한 소규모 식품생산시스템을 소개하고 그린치킨 육성, 각종 채소 재배법 교육 등 주민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들을 진행했습니다.



필리핀 지역공동체 교육역량 강화를 통한 아동청소년이 행복한 마을 만들기



아동청소년 249 명

필리핀 교외지역에는 아이들을 위한 적절한 교육자원과 프로그램이 매우 부족하며 도시와 소외지역 간의 교육 격차도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이를 해소하고자 2018년 하반기부터 필리핀 보홀 섬 까냥간 지역에서 아동청소년 교육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 교육 운영위원회를 설치해 학생들의 학업 상 어려움을 파악하였습니다. 또한 방과 후 활동을 통해 읽고 쓰는 능력이 부족한 아이들에게 보충교육을 실시하고 위생교육, 텃밭 가꾸기, 교사와 학생이 함께하는 교육 개발 활동을 통해 학생들의 창의력과 잠재력의 개발을 도모합니다.

'초등학교부터 대학교까지, 학업의 징검다리가 되어준 장학사업'

세부 시 빈곤 지역에서 10년 넘게 지원해온 빈곤아동 학습지원 장학금 사업. 2018년에는 사업 역사상 최초로! 2명의 학생이 대학에 입학하는 경사가 있었습니다. 바로 앤(Ann)과 트릭시(Trixzie) 두 학생입니다. 어려운 가정형편 때문에 어린 시절부터 거리에서 초와 껌을 팔아야만 했지만, 장학사업의 지원으로 학업을 이어가 어느덧 의지

한 대학생이 된 앤. 학업에 대한 열정이 대단해 밤잠을 줄여가며 공부한다는 세부대학교 경영회계학과

의 트릭시. 각각 세부대학교의 사회사업학과와 경영회계학과에

다니고 있습니다. 쾌활하고 열정적인 앤과 차분하고 양전한 트릭시의 성격은

대조적이지만 학업과 밝은 미래에 대한 열정만은 같습니다.

재단에서는 두 학생이 대학교까지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은

앤과 트릭시 모두 재단의 협력단체인 FTCP 사무실

에서 업무를 보조하며 사회활동가의 꿈을 키워가고

있다고 하니, 이들의 장래가 더욱 기대됩니다!



트릭시(Trixzie)



앤(Ann)



미얀마의 여성들은 낮은 지위로 인해 여전히 많은 사회적 불평등과 제약을 겪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고려하여 5년간 진행한 '젠더 전문가 양성을 위한 청년 인턴십 프로그램'을 이어, 현재는 미얀마의 사립학교 교사를 대상으로 한 젠더 역량강화 교육사업을 3년째 이어가고 있습니다.

사업지역 파코쿠 시, 사가잉 시, 프롬 시, 양곤 시, 모울메인 시, 뽀우린 시
협력단체 Thingaha Gender Organization

사립학교 교사 대상 젠더 역량강화 교육사업

2곳의 지역에서 젠더 심화교육, 5곳의 지역에서 교사들의 동료교육이 이루어졌습니다. 젠더 교육 커리큘럼 개발을 위한 노력도 있었습니다. 사업에 참여한 교사들은 단순히 젠더에 대해 배우는 것을 넘어 그 배움을 재창조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남성 참여자

35명



여성 참여자

127명



교사 대상 젠더 심화교육

파코쿠 시와 사가잉 시 두 지역에서 작년 교육에 참여했던 교사들을 대상으로 더욱 심화된 젠더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이들은 젠더와 여성인권, 그리고 성평등 교육의 역할에 대해 심도깊게 토론하고 지난 교육 후의 경험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번 교육을 통해 교사들 사이의 네트워크가 한층 강화되었습니다.

불교학교 교사들의 동료교육

파코쿠 시에서의 심화교육에 참여했던 불교학교 교사들이 다른 지역의 교사들에게 자신들이 배운 것들을 다시 교육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5번의 프로그램 시행 이전에 매번 TGO의 멘토링과 코칭을 받았습니다. 교육을 받은 교사들의 젠더 역량이 강화되었음은 물론, 진행 교사들도 이번 기회를 통해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커리큘럼 개발 워크숍

학생들에게까지 성평등 의식을 확산시키기 위해서는 교사들이 효과적인 젠더 수업을 진행해야 합니다. 뽀우린 시에서 불교학교 교사들이 모여 학생들의 인식개선을 위한 교수법을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학교 내 성평등과 여성 인권의 옹호활동에 대해서도 배웠습니다.

'젠더교육을 통해 사고방식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저는 불교학교의 교사인 20살 시루(Sithu Lynn)입니다. 2016년부터 젠더 역량강화 교육을 받았고 마을 공동체에서 직접 트레이닝을 진행해보기도 했습니다.

젠더에 대해 배우면서 과거의 저를 많이 돌아보게 되었어요. 예전에는 밤늦게 돌아다니고 집에 늦게 들어오는 여자들을 이해하지 못했고 그 문제 때문에 누나들과 많이 싸우기도 했어요. 하지만 이제 저의 그런 생각들이 모두 편견이었다는 것을 깨닫고 반성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이 변한 것처럼 저의 가족, 마을, 사회 전체까지도 조금씩 바뀌어 갔으면 좋겠어요. 저도 제 힘이 닿는 한으로 최대한 돕고 싶습니다.



기후변화로 전 국토의 91%가 사막으로 바뀌고 있는 몽골. 많은 국민들이 전통적인 유목을 포기하고 환경 난민으로 전락하기도 합니다. 이에 재단은 몽골 바양노르 지역에서 환경 개선 사업과 공동체 개발 사업을 동시에 추진 중입니다.



몽골

사업지역 바양노르 슝 지역
협력단체 푸른아시아



아시아 희망의 숲 자립 기반 지원사업

-  주민교육 3회
-  1톤 트럭 1대

한국희망재단이 사막화 방지를 위해 오랫동안 나무심기에 참여해온 몽골 바양노르 슝 지역의 주민들이 숲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과실수를 통한 소득원을 확보하도록 자립기반을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2018년에는 양질의 유실수 확보를 위해 1톤 트럭을 구입하고 자동화관수시스템을 설치하였습니다. 주민들은 '바양노르 바양소고이' 산림환경조합을 결성하여 자립을 위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였고, 역량강화를 위한 협동조합과 양묘 교육에 참여하였습니다.

활동가 역량강화 교육



* CSEI(Center for Social Equity and Inclusion)는 2008년 인도에서 설립된 불가촉천민(달리트) 등 소외계층 청소년들을 위한 교육사업과 권리옹호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는 NGO입니다. 한국희망재단과는 2015년부터 뉴델리 지역 공부방 지원사업을 통해 빈곤 청소년들에게 포용적이고 공평한 양질의 교육을 받을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인도 CSEI 쿠마르 대표 한국방문

쿠마르 인도 CSEI 공동대표(33)는 아시아민주주의네트워크에서 주최한 "Empowering Asia Forum 2018"에 참석하기 위해 5월14일부터 한국을 방문하였습니다. 아시아 여러 나라에서 참가한 20명의 청년들과 함께 아시아 민주주의 확산에 대해 발표, 토의하고 연대를 도모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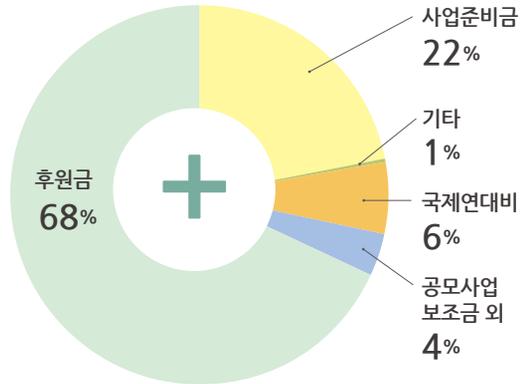
더불어 재단에서 진행한 사회적기업 교육에도 참여했습니다. <피플앤컴>에서 기업과 관공서로부터 중고컴퓨터를 모으고 분해, 조립해서 다시 시장에 판매하거나 소외계층에 지원하는 사업 과정에 대해 배웠으며, <사랑의 자전거>에서는 저소득 계층을 위한 폐자전거의 재활용과 다양한 형태의 리어카 제작 현장을 견학했습니다. 이번 쿠마르 씨의 방문을 통해 아이디어를 얻은 CSEI는 현재 인도 달리트 공동체 내에서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회적 기업 설립을 실제 준비하고 있습니다.

2018 재정보고

/ 2018년 수입 현황

항목	2018년
후원금	1,288,232,842
공모사업 보조금 외	71,887,810
국제연대 수입	113,769,000
기타수입	6,860,660
2018년 사업준비금	411,895,842
소계	1,892,646,15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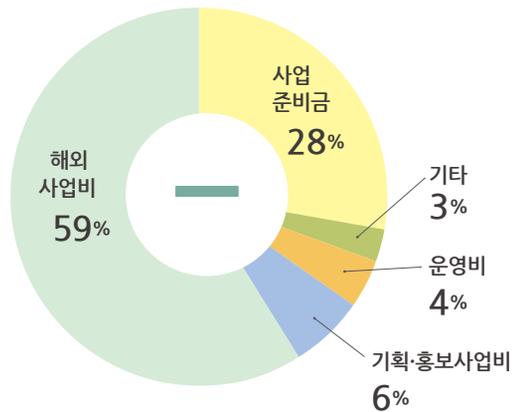
단위: 원



/ 2018년 지출 현황

항목	2018년
해외사업비	1,119,299,284
기획 홍보사업비	118,341,106
운영비	81,292,154
기타	50,917,074
2019년 사업준비금	522,796,536
소계	1,892,646,15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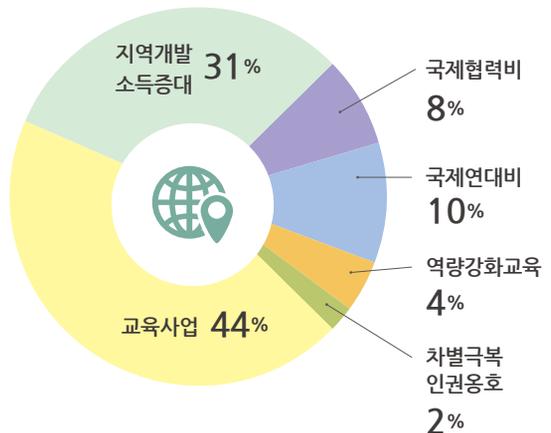
단위: 원



/ 2018년 해외사업비 현황

항목	2018년
지역개발 소득증대사업	350,863,119
교육사업	493,637,361
차별극복 인권옹호	24,768,621
역량강화 교육비	47,963,368
국제연대 및 교류비	115,360,244
국제협력비	86,706,571
소계	1,119,299,284

단위: 원





학교를 다니며 교육센터에서 기술을 습득해 학비를 모으는 우간다 소녀

“결혼 말고 학교가 좋아요”

세계 최빈국 중 한 곳인 우간다는 어린 소녀들의 학교 중퇴율이 매우 높습니다. 10대 소녀들이 소 몇 마리 신부값에 팔려 원치 않는 강제혼을 당하기 때문입니다. 조혼은 출산 사망, 성병 등 질병 위험마저 높입니다. 잘못된 인습을 이겨내고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가장 뜨겁고도 아름다운 응원은 바로 교육 지원입니다. 여아들이 부모의 경제적 도움 없이도 학업을 이어가도록 기술교육 지원, 학비 마련을 돕는 교육 지원사업에 함께 힘을 모아주세요.

후원계좌 **농협 063-01-206556** (사)한국희망재단
신한 140-007-193205 (사)한국희망재단

후원문의 **02-365-4673**

*보내주시는 후원금 전액은 우간다 소녀들을 위한 교육센터 건립 및 교육지원사업으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절취선

| 정기 후원회원 가입 신청서 |

아래의 CMS 출금 이체에 동의하시면 은행에 가지 않고도 후원금을 자동이체 하실 수 있습니다.

후원자 기본 정보

이름 _____ 주소 _____

전화 _____ 휴대폰 _____ 이메일 _____

CMS 출금 이체 동의서

예금주 _____ 생년월일 _____

출금은행 _____ 계좌번호 _____

이체 날짜를 선택해주세요 매월 10일 25일

후원 금액 월 1만원 2만원 3만원 5만원 10만원 기타

기부금영수증

기부자 주민등록번호 _____ 본인은 한국희망재단 CMS를 이용하여 정기후원금을 내는데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추천인



한국희망재단

후원 계좌 우리은행 1005-501-044190 농협 063-01-206556 국민 855401-04-008784 (사) 한국희망재단

발행인 최기식 주소 121-897 서울시 마포구 양화진길 23, 401호 전화 02-365-4673 팩스 02-796-4673 홈페이지 www.hope365.org



KHF

한국희망재단